

전통시장 청년몰 지원 도내 3곳 선정

전북중기청, 진안고원·완주 삼례 등 2곳 '신규'·군산 공설시장은 '확장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5월 공고된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청년상인육성 및 특성화시장 지원사업 추가 공고'에서 금년도 청년몰 '신규조성사업부문' 전북 2개 시장(진안고원시장, 완주 삼례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부문' 전북 1개 시장(군산공설시장)으로 총3개 시장이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몰 조성에는 청년상인 점포와 놀이 체험 쇼핑이 가능한 복합몰(mall)을 조성,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예산지원은 시장당 15억원~30억원(국비5, 지방비4, 자부담 1)이고,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은 사업 종료 후 지원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몰 및 창업지원 대상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및 성과제고를 하고 지원규모는 시장당 3억~10억(국비 5 : 지방비 4 : 자부담 1)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청년몰 신규 조성 사업에 선정된 2개 지역(진안, 완주)은 전통시장내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상인 점포와 편의시설 및 공용공간 등 기반조성과 창업교육 및 점포체험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하여 지역 전통

시장의 랜드마크로 육성되고 상권활성화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에 선정된 군산 공설시장은 공통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등 청년몰 활성화 지원과 각 부처 협업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고객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노브랜드를,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창업보육실 등을 지원하여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산조선소 폐쇄, GM 군산공장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

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과 활성화 및 확장지원은 청년몰과 청년상인을 통해 젊은층의 고객들을 유입하고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고,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으로는 신청시장 발굴, 전국 심사에 대비한 현장평가 진행, 선정필요성 설명 등 전략적 접근과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14개 시장을 선정한 가운데 전북에서 3개 시장이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청년몰 조성 지원과 관련 시장은 청년몰 조성 활성화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0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북 대리운전 노·사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리운전기사 대출상품 출시

전은, 전북 대리운전 노.사와 포용적금융 지원 MOU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0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북 대리운전 노.사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를 따뜻한 금융 실천 원년으로 선포한 전북은행이 전북 간호조무사회, 사회복지사 협회에 이어 실시하는 금융지원 협약으로, 전북 대리운전 기사 약2,200명을 대상으로 포용적금융(대출)을 실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와 연계하여 채무조정(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상담 지원 등 포괄적 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대출은, 대리운전 특성상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리운전 노동조합 및 기사들 면담을 통해 소득 추정방법을 마련 상품을 출시했다.

대리운전 노동조합 김강운 전북지부

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금융지원이 확대될 바라고, 전북은행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를 따뜻한 금융 실천 원년으로 선포한 전북은행이 전북 대출은 실무구시 정신에 입각, 개발한 상품으로 앞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는 개인고객의 부채를 관리하는 부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로

고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전환하면서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고려해 월 부채상환액을 정하고 있어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고금리대출이 은행권 신용대출로 통합되면서 실제 이용고객의 상당수가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상용 우수정비 인재 육성·청년 취업 지원

현대차, 대원대 등 교육기관과 '트럭&버스 아카데미' 운영 산학협력 MOU

현대자동차(주)는 천안 글로벌 러닝센터(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지난 9일 현대자동차 및 6개 국내 정비 교육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용 우수 정비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상용 전문 정비 인력 육성을 위한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할 국내 정비 교육기관은 대원대학교, 부산·인천·창원 폴리텍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서

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등 6개소다. 현대자동차는 협약을 맺은 각 교육기관에 상용 전문 정비 강사를 파견해 강의를 지원하고, 실습용 상용차 및 교재,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올 하반기 시작되는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에서는 총 90명의 미래 정비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며, 교육 후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정비 협력사인 블루벤즈와 연계해 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는 총 10주치의 정규 과정 및 방학을 이

용한 집중과정으로 운영되며, 미래 신기술 소개 및 현대 상용차 정비 기초부터 고장진단까지 이론과 실습을 겸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특강, 정비 현장 체험, 연구소 및 현대 모터스튜디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는 베트남 교육기관과 산학협동 추진해 국내에 해외 정비 인력을 육성하고, 글로벌 상용 정비 기술을 표준화 및

전문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정비협력사 블루벤즈 대표자들은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 운영 소식에 대해 "상용차 정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항후 졸업생들이 전국 각지의 상용차 정비 리더로 활약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국내 정비 교육기관과 상용 정비 인력 양성 및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현대 트럭&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라며 "항후에도 국내외 상용 우수 정비 인력 육성에 적극 앞장서 현대자동차 상용 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청소년 어울림 캠프

전북농협, 도내 결혼이주여성 청소년 자녀·일반 학생 대상 직업 체험·진로 탐색 등 가져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협도농협동연수원(원장 권갑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의 특별 프로그램인 '2018 농촌 청소년 어울림 여름캠프'를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지역 중고교생과 멘토 대학생 등 35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결혼이주여성의 청소년 자녀와 일반 학생이 2박 3일 동안 마케팅전문가 건축가 스포츠맨 디자이너 등 여러 직업을 체험하고 대학생 멘토와 함께 진로 탐색,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국립공공박물관 견학, 역사 의식을 고취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협도농협동연수원(원장 권갑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의 특별 프로그램인 '2018 농촌 청소년 어울림 여름캠프'를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또한, 청년농업인 김승주대표 '슬기 재빨리'의 강의를 통해 우리 농산품로 만든 건강한 우리밥 소개와 바른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엄

마나라 요리 만들기' 시간에는 월남 쌀 등 직접 요리하여 친구들과 나눠 먹는 시간도 가졌다. 유재도 본부장은 "다문화 청소년과

멘토 대학생 일반 학생이 함께 어울려 직업 탐색과 타 문화 이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태호 NH농협생명 부사장은 지난 10일 임실 장재리 박주섬씨 농가를 찾아 폭염피해 농업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살폈다.

김태호 NH농협생명 부사장, 폭염피해 농업인 위로

김태호 NH농협생명 부사장은 지난 10일 임실 장재리 박주섬씨 농가를 방문하여 폭염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살폈다.

최악의 폭염과 지속되는 가뭄으로 고추마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이대근 임실농협조합장과 지광수 전북총국총국장이 함께 했다.

전북농협본부장을 지난해까지 역임한 김태호 부사장은, 본부장 재임시절부터 대표적인 농도인 전북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농축산물 판로확장, 농업인행복버스사업 등 전북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농협생명 부사장 취임 이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증대에 특히 많은 힘을 쏟았다. 실제로 전북지역 가입률은 지난해 대비 20% 이상 증가해 농업인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수 총 78,816명 2018년 8월 9일 기준)

김태호 부사장은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 받고 계신 농업인 분들께 작은 위로를 드리고 싶다"며, "농업인이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농협생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폭염 피해 지원을 위해 △최대 6개월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 부활 연체이자 면제 △대출 이자납입 및 할부상환금 6개월 유예 △대출 재약정 및 기한연기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놓았다. 폭염 피해에 특히 취약한 농업인을 위해 전국 지역총국 기반의 폭염피해 지원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영태 기자

"우리지역에서 자란 아로니아 팝니다" | 순창군·전북농협 등 서울 양재하나로유통센터에서 판촉행사

순창군이 폭염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판로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아로니아 농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양재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순창군 주최,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아로니아 판촉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유재도 농협전북지역본부장, 한재현 순창군지부장, 유광희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등 행정과 농협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35.6ha 면적에서 485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아로니아의 생육상태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폭염으로 인해 상품성이 없는 불량과가 많이 나오고 가격이 하락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



지난 10일 서울 양재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전북농협과 순창군, 순창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로니아 특별판매전을 열었다.

해 추진됐다. 아로니아 판매행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데, 지난 10일 황숙주 군수가 직접 참여하는 깜짝 판촉행사를 통해 아로니아 홍보는 물론 판매액을 대폭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한시간 가장 진행된 판촉행사는 아로니아 떡 시식,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주스 시음 200명, 황숙주 군수가 직접 친환경 쌀과 믹스베리 300개를 증정하는 등 특별한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 기간동안 아로니아 생과,냉동과를 비롯해 오디 냉동과, 블루베리 냉동 제품 등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인기를 모았다.

황숙주 군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자랑하는 블루베리에 이어 아로니아도 순창의 특산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향산화 효능이 높은 아로니아를 전국에 알려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원형 기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 키트'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는 지난 10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효자5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Cool) 키트' 전달식을 최강성 전북은행노조위원장, 전을열 효자5동동장, 이상배 효자5동동장과 함께 했다.

전북은행노조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극심한 폭염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남은 여름을 보내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향토은행의 역할을 위해 마련됐다.

최강성 전북은행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 전원과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10여명은 여름이불 아이스크림 손수건 모기 및 습기제거제 비타린 등 총 10종의 여름용품 담은 300만원 상당의 '시원(Cool) 키트' 100개를 포장해 전달했다.

아울러,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시원(Cool) 키트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